中國語文學 第83輯(2020. 4) 83-105쪽

# 趙執信의 詩 고찰

김 지 영*

<目 次>

Ⅰ. 서 론
Ⅱ. 조집신의 시학 주장
1. 詩之中須有人在
2. 詩之外尚有事在
3. 文以意爲主, 以言語爲役
Ⅲ. 조집신의 시 분석
1. 사회시
2. 회고시
3. 유람시
4. 전원시
Ⅳ. 결 론

## Ⅰ. 서 론

趙執信(1662~1744)은 淸初六大家[1]의 한 사람으로, 자는 伸符, 호는 秋谷, 또는 飴山老人이며 산동 益都(지금의 博山) 사람이다. 그의 증조부 趙進美(1620~1692)는 당시 詩名이 뛰어났는데[2] 조집신은 그 가학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영민하였고 시문에도 뛰어났다. 조집신은 1679년(康熙 18년) 18세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그 뒤 벼슬은 右春坊右贊善 겸 翰林院檢討까지 올랐다. 1689년(康熙 28년) 8월 그의 나이 28세 때 孝懿 황후의 국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1) 淸初六大家는 청초에 활동했던 저명한 시인들로 王士禛, 朱彝尊, 宋琬, 施閏章, 趙執信, 查愼行을 가리킨다.

2) 왕사정은 "그가(趙進美) 어려서 지은 시는 맑고 진실하며 속됨을 벗어나 왕유와 맹호연의 의취를 보여주고 있다(公少爲詩, 淸眞絶俗, 得王孟之趣.)"고 평가한 바 있다. 王士禛, ≪淸詩匯≫ 권22.

www.kci.go.kr

상 기간에 그의 친구 洪昇의 초청으로 연극 ≪長生殿≫을 관람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이것이 바로 '長生殿劇禍案'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해 조집신은 10여 년의 관직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뒤로 그는 귀향하여 시와 술을 벗 삼고 전국을 유랑하며 살았다. 비록 그 사이 여러 번 관직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고 벼슬을 떠나 자유롭게 살았다. 조집신은 64세 때 유람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은거하며 지냈다. 그는 평생 1000여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의 저작으로는 시론과 문집을 모은 ≪飴山堂集≫ 24권, 詩歌 聲律에 대해 논한 ≪聲調譜≫ 1권, 왕사정의 시론을 비판한 ≪談龍錄≫ 1권 및 ≪後譜≫ 1권이 있다.

청 왕조의 개창 초기였던 17세기 초반의 혼란기와 과도기가 지나고, 17세기 중반 이후 권련기반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사대부 계층의 고전시 창착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청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명의 주요한 시인을 중심으로 출현한 시인 군이 유파를 형성했다는 점이다.[3] 청대 시인들은 시가 이론을 중시하여 자신의 시론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시를 창작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청대에는 수많은 유파와 시론이 생겨났는데 하나의 이론이 형성되면 그에 반하는 다른 반론이 나타나곤 했다. 17세기 후반 康熙 연간에 시단을 주도했던 이는 王士禛(1634~1711)이다. 그는 司空圖의 ≪二十四詩品≫과 송대 嚴羽의 ≪滄浪詩話≫의 이론을 계승하여 시로써 禪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神韻說'을 주장하였다. 즉 사공도의 "한 자도 쓰지 않고 멋을 다 표현하였다(不着一字, 盡得風流)"라는 말과 엄우의 "말은 다하였으되 뜻은 끝이 없다(言有盡而意無窮)"라는 말을 시의 궁극적인 지향으로 삼았다. 당시 시단의 맹주였던 왕사정의 '神韻說'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조집신이다. 그는 왕사정의 조카사위였으나 왕사정의 신운설을 비판하며 시와 禪의 일치가 아닌 작가의 진실한 감정과 실제 상황을 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집신은

3) 송용준, ≪中國詩史≫, 명문당, 2017, 608쪽.

www.kci.go.kr

자신의 시론서인 ≪談龍錄≫에서 “시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시 밖에 일이 있어야 한다(詩之中須有人在, 詩之外尙有事在.)”[4]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구상에 깊이와 힘이 있고 민생의 질고를 반영한 작품이 많다. 조집신은 처음에는 왕사정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나중에는 虞山詩派[5]의 馮班이나 吳喬의 ‘사실로 시를 짓는(以實求詩)’ 흐름에 동참하였고, 청대 초기 현실적인 시를 쓸 것을 주장하며 이를 실천하여 나름의 시 영역을 개척하였다.

지금까지 청대 시인에 대한 연구는 당송시 연구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조집신에 대한 국내 연구는 조집신의 시론집인 ≪談龍錄≫에 대한 논문 외에 시와 관련된 연구는 한 편도 나오지 않았다.[6] 본 고에서는 청대 초기 시인으로서 당시 시단의 주류였던 신운설에 반대하여 자신만의 시세계를 이루어낸 조집신의 시학주장과 그의 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Ⅱ. 조집신의 시학 주장

조집신의 시가 이론은 왕사정의 신운설에 반대하여 지은 ≪談龍錄≫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당시 문단을 풍미했던 왕사정의 신운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이 안에 조집신의 시에 대한 생각과 이론이 담겨져 있다. 본 장에서는 ≪談龍錄≫에 나타난 조집신의 시학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趙執信, ≪談龍錄≫6則, “詩之中須有人在, 詩之外尙有事在.”.

5) 江蘇省 常熟人 錢謙益(1582~1664)을 수령으로 동향인 풍반·오교를 포함한 시파를 虞山詩派라고 한다. 그들은 성정 위주의 논조를 반대하고 전통시학의 재건을 주장했다. 특히 수령인 전겸익은 ‘시에는 바탕이 있다(詩有本)’라는 학설을 내세우고 溫柔敦厚하고 학문과 성정이 융화된 논리의 진실성이 있는 시를 추구하였다.

6)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조집신에 대한 논문으로 유성준의 〈조집신은 ≪담용록≫에서 신운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중국문학이론≫ 창간호)가 있다.

www.kci.go.kr

### 1. 詩之中須有人在(시 속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청대 초기 시단에 주류를 이루었던 왕사정의 신운설은 시 안에 선의 경지를 추구하는 기풍이 강하여 현실의 상황을 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조집신은 이런 풍조에 반대하여 시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談龍錄≫7則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곤산의 吳喬는 시를 논함이 매우 정밀하였다. 그가 지은 ≪위로시화≫는 내가 오문 소주까지 세 번 찾아가 두루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단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보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시 속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감복하여 그 말을 명언이라 생각하였다.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하고 겸하여 그 시대를 논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예의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것이다. 만일 말이 마음과 어긋나고 그 시대와 지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고 논할 수 있겠는가?[7]

청초의 시론이 사공도와 엄우의 설에 경도되어 있을 때 이에 맞서 유가의 시학 정신을 회복시키자는 기치를 내건 문인 집단이 虞山詩派이다. 조집신은 우산시파의 대표주자인 오교가 내세운 '시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시를 통하여 사람을 알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의 본질이자 역할이라 여겼다. 이는 유가에서 주장하는 예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마음이 맞고 시대와 때에 맞는 시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집신은 시에도 禮義가 있어야 한다고 여겼는데 그가 생각하는 예의는 다음과 같다.

---

7) 趙執信, ≪談龍錄≫ 7則, "崑山吳修齡論詩甚精. 所著圍爐詩話, 余三客吳文, 遍求之不可得. 獨見其〈與友人書〉一篇, 中有云: "詩之中須有人在." 余服膺以爲名言. 夫必使後世因其詩以知其人, 而兼可以論其世, 是又與於禮義之大者也. 若言與心遠, 而又與其時與地不相蒙也, 將安所得知之而論之?"

www.kci.go.kr

> 시는 본래 그 자체로 예의를 지니고 있다. 지금 기쁜 자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서는 안 되고, 슬픈 자가 기뻐 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의인 것이다. 부귀한 자는 옹색한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도 뽐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예의가 아닌 것이 없다. 자세히 논하면 글은 반드시 순리를 따라야 하고 담긴 의취는 반드시 서로 기탁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의인 것이다.[8]

조집신은 기쁜 사람은 기쁜 감정을 표현해야지 기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슬픈 사람이 기뻐 웃는다면 이는 시가 갖추어야 할 예의에서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시인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충실해야지 거짓되거나 허위의 감정을 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란 자연스러운 감정을 따르고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취를 기탁해야 하는 데 이것이 바로 시의 예의인 것이다.

조집신은 왕사정의 신운설을 비판하면서 그의 시는 "시 속에 사람이 없다(詩中無人)"고 주장하였다.

> 왕사정이 전에 소첨사 겸 한림시강학사로서 남해에 주재자로 있으면서 ≪남해집≫을 지었는데, 그 첫머리 〈留別相送諸子〉에서 "노구교 위에서 보니 지는 해가 먼지 바람에 희미하네. 만리 길이 여기서 시작하니 외로운 마음 누구에게 토로하리오?" 또 "여기서 주강을 떠나니 그리는 마음 슬피 우는 원숭이에 부치노라"라고 하였다. 좌천되어 멀리 가 있는 관리의 심정을 모르면서 또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다음 장의 〈與友夜話〉에서는 "차가운 밤에 술잔을 같이 하면서 궁구한 길에 빠지게 되었음을 한탄하네."라고 하였다. 여기서 窮道가 무엇인가? 시 속에 작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9]

8) 趙執信, ≪談龍錄≫6則, "詩固自有其禮義也. 今夫喜者不可爲泣涕, 悲者不可爲歡笑, 此禮義也. 富貴者不可語寒陋, 貧賤者不可語侈大, 推而論之, 無非禮義也. 其細焉者, 文字必相從順, 意興必相附屬, 亦禮義也."

9) 趙執信, ≪談龍錄≫16則, "司寇昔以少詹事兼翰林侍講學士, 奉使祭告南海, 著南海集, 其首章〈留別相送諸子〉云, '蘆溝橋上望, 落日風塵昏. 萬里自茲始, 孤懷誰與論?' 又云: '此去珠江水, 相思寄斷猿.' 不識謫宦遷客更作何語? 其次章〈與友

www.kci.go.kr

조집신은 왕사정이 시 속에서 “지방 관리로서의 외로운 심회를 누구와 토로하리오?”라든가 “궁구한 길에 빠졌다”고 한 표현은 진심의 발로가 아닌 가식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시란 작가의 체험이 우러나와 그 속에 작가의 심정이 녹아있어야 하는데 왕사정의 시에는 작가의 진실된 감정이 아닌 의례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 여겼다. 조집신은 시인이 神韻만을 추구하여 허위의 수식만을 추구한다면 그 작품에서는 ‘사람’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대 문인 袁枚(1716~1797) 역시 왕사정의 시에 대하여 “왕사정은 수식에 힘쓰고 성정을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반드시 시를 짓고, 시 속에 반드시 전고를 사용하니, 그 희로애락이 진실되지 못하다”[10]라고 평가한 바 있다. 원매 역시 조집신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는 사람의 성정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조집신에게는 신운설을 주장했던 왕사정의 시는 진실한 감정이 결여된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 2. 詩之外尙有事在(시 밖에 일이 있어야 한다)

조집신은 또한 시가 사회와 현실의 일을 반영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담용록≫16則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시인은 학문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도를 아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 소식은 두보는 시 밖에 항상 일이 있는 것을 중시했다고 논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유우석은 시에서 “잠긴 배 옆에는 천 개의 돛단배 지나가고, 병든 나무 앞에는 만 그루의 나무가 봄이라네”라고 하였는데 도를 담고 있는 말이다. 백거이는 이 시를 매우 칭찬하였다. 나는 일찍이 (왕사정에게) 왕사정과 비슷한다고 말하자 그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사정은 두보를 매우 싫어하였지만, 다만 드러내놓고 감히 공격하지는

夜話〉云: ‘寒宵共杯酒, 一笑失窮途.’窮途定何許? 非所謂詩中無人者耶?”

10) 袁枚, ≪隨園詩話≫권3, “阮亭(王漁洋)主修飾, 不主性情, 觀其到一處必有詩, 詩中必用典, 可以想見其喜怒哀樂之不眞矣.”

www.kci.go.kr

않았다. 매번 양대년이 (두보를) '村夫子'라 부른 말을 거론하였고, 또한 백거이를 가벼이 여겼으며 羅隱을 매우 싫어하였다. 나는 나은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겠다. 백거이의 〈진중음〉과 〈신악부〉를 가벼이 여길 수 있다니, 그렇다면 이것은 시경의 〈소아〉와 단절시키는 것이다. 두보 같은 이는 천고에 명성이 전해지고 있으니 내가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11]

이 글에서 조집신은 소식이 "두보 시는 시 밖에 일이 있다(詩外尚有事在)"라고 평가한 것에 적극 동의하며 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집신은 시가 추구해야 할 역할로 현실의 일을 시 속에 반영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는 또한 시인은 학문과 도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즉 시인은 자신의 학식을 바탕으로 시 속에는 시 밖의 일을 담아내고 도를 담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유가 전통의 詩教 이론을 계승한 것으로 시의 사회적 공능을 중시한 것이다. 조집신은 이런 정신을 이은 작가로 두보와 백거이를 들었고, 특히 백거이의 〈진중음〉과 〈신악부〉는 시 밖의 일을 담아내어 사회 현실을 반영한 걸작이라 평가하며 ≪시경≫의 〈소아〉에 버금간다고 평가하였다. 반대로 신운설을 주장했던 왕사정은 두보, 백거이, 유우석, 나은 등 시 속에 사회를 담아낸 현실주의 작가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 文以意爲主, 以言語爲役(문은 뜻을 주로 하고 언어를 종으로 여긴다)

조집신은 문장은 뜻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담용록≫ 21則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1) 趙執信, ≪談龍錄≫16則, "詩人貴知學, 尤貴知道, 東坡論少陵詩外尚有事在是也. 劉賓客詩云, "沉舟側畔千帆過, 病樹前頭萬木春." 有道之言也, 白傅極推之, 余嘗擧似阮翁, 答曰: '我所不解'. 阮翁酷不喜少陵, 特不敢顯攻之, 每擧楊大年'村夫子'之目以語客, 又薄樂天而深惡羅昭諫. 余謂昭諫無論已: 樂天〈秦中音〉〈新樂府〉而可薄, 是絶〈小雅〉也. 若少陵有聽之千古矣, 余何容置喙!"

www.kci.go.kr

> (周昂이 이르기를) '문장은 뜻을 주로 하고 언어를 종으로 여겨야 한다. 주인이 강하고 종이 약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람들은 자주 그 종을 교만케 하여 날뛰어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주인을 부리게 하였으니 비록 시어가 극히 공교하다 해도 어찌 문장의 정도라고 하겠는가?' (주앙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 땅에 닿았다.[12]

이 글에서 조집신은 금대의 학자인 周昂[13]이 언급했던 '뜻을 주로 하고 언어를 종으로 여긴다(文以意爲主, 以言語爲役)'라는 말을 거론하며 그의 논지에 감탄하고 적극 동조하였다. 주앙은 금대 시단이 글의 내용보다는 형식과 수식의 공교함에만 힘써 중국 전통의 '詩言志' 정신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주앙의 언급을 통해 조집신은 화려한 시어들에 사로잡혀 시의 본의에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용어의 소박성과 의취의 深遠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뜻을 중시하여 언어에 집착하지 말기를 주장했다. 이후 그의 시는 화려한 용어나 전고를 많이 인용하지 않았으며 왕사정처럼 공허한 수식에 힘쓰지 않았다.

조집신은 시의 의취를 표현하는 데에서 더 나가면 말이 오묘해지는 경지에 이른다고 언급하였다.

> 처음 시 짓기를 배우는 데는 뜻을 표현하기를 바란다. 오래되면 간결하고 맑고 높고 원대해져서 흥취가 오묘하게 되니 곧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른바 여기에 언사로 표현하고 저기에 뜻을 일으키게 된다.[14]

조집신은 초학자들은 시를 지을 때 소박하고 순수하게 뜻을 표현해야

12) 趙執信, ≪談龍錄≫21則, "(周昂))又云: '文以意爲主, 以言語爲役, 主強而役弱, 則無令不從. 今人往驕其所役, 至跋扈難制, 甚者反役其主, 雖極詞語之工, 而豈文之正哉?' 余不覺俛首至地."

13) 周昂(?~1212)은 金代말 유명한 학자인 王若虛의 외숙으로 '뜻을 주로 해야 한다(以意爲主)'는 이론을 강조했던 문인이다.

14) 趙執信, ≪談龍錄≫: "始學爲詩, 期於達意. 久而簡澹高遠, 興寄微妙, 乃可貴尚. 所謂言見於此而起意在彼."

www.kci.go.kr

하며, 이런 과정이 오래되면 시가 간결하고 고아해져 흥취가 오묘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조집신이 왕사정의 이른바 '妙悟'설에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집신은 수사를 절대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언어들이 뜻의 기운을 빼앗지 않고 뜻을 전달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시의 뜻을 위주로 하면서 그 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고아한 흥취에 대하여 높게 샀던 것이다. 이 글에서 조집신이 왕사정을 맹목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합리한 이론은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Ⅲ. 조집신의 시 분석

조집신은 시는 사람의 내면의 감정을 노래하고, 사람 밖에 있는 실제의 일을 담아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의 고아한 의취를 중시하여 화려한 수사가 문장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그는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치의 묘사나 정회의 서술도 직접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의 시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현실의 상황을 담아내어 구상에 깊이와 힘이 있었고, 백성의 질고를 반영한 작품을 많이 썼다. 본 장에서는 조집신의 시를 내용에 따라 현실의 비리를 풍자한 내용은 사회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감회를 서술한 내용은 회고시, 각지를 여행하며 느낀 감정을 기록한 시를 유람시, 전원에서의 일상을 노래한 시를 전원시로 구분하여 조집신 시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회시

먼저 조집신이 길가에 세워진 송덕비를 보고 노래한 〈道旁碑(길가의 비석)〉 시를 보기로 한다.

www.kci.go.kr

道旁碑石何纍纍, 길가에 서있는 비석들이 얼마나 많은가?
十里五里行相追. 십리 오리 가는 곳마다 서로 이어지는구나.
細觀文字未磨滅, 자세히 보면 글자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는데
其詞如出一手爲. 그 글들이 모두 한 사람 손에서 나온 듯하네.
盛稱長吏有惠政, 어떤 고관이 은혜로운 정치를 펼쳐
遺愛想像千秋垂. 남겨진 은덕을 천년동안 그리워할 것이라 칭찬하네.
就中行事極瑣細, 거기에 쓰인 행적이 극히 하찮은 일들이고
齟齬不顧識者嗤. 표현이 어긋나 식자들 비웃을 것도 꺼리지 않았네.
徵輸早畢盜終獲, 세금은 다 거두어 바치고 도적들도 끝내 다 잡았으며
黌宮旣葺城堞隨. 학당을 수리하고 성의 담장도 이어 손질했다고 하네.
先聖且爲要名具, 옛 성인이 명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으니
下此黎庶吁可悲. 그 밑의 백성들이 한숨 쉬는 것이 더욱 슬퍼지네.
居人過者聊借問, 지나가는 그 고장 사람들에게 잠시 말씀 물어 보니
姓名恍惚云不知. "그 사람 성명은 어렴풋하여 알지 못하겠고,
往者於我本無恩, 이전에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푼 일이 없는데
去後遣我如何思. 지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그를 그리워할까요?
去者不思來者怒, 떠난 장관 사정비 안 세워주면 후임 장관 노여워하니
後車恐蹈前車危. 뒷사람도 앞사람 같은 푸대접받을까 두려워해서라네.
深山鑿石秋雨滑, 깊은 산에서 돌 끌어 나르는데 가을비에 길 미끄러워
耕時牛力勞挽推. 밭 갈던 소의 힘 빌어 노고를 다해 끌어왔어요.
里社合錢乞作記, 마을에서 돈 거두어 글 아는 이에게 비문을 부탁하고
兎園老叟頤指揮. 글방 훈장의 턱짓을 따라 일을 했지요.
請看碑石俱磚甃, 보세요, 비석은 벽돌로 잘 세워졌지만
身及妻子無完衣. 우리나 처자들은 몸에 두를 온전한 옷도 없어요.
但愿太行山上石, 다만 바라기를 태항산의 바위들이
化爲滹沱水中泥. 모두 호타하 물 속의 진흙으로 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不然道旁隙地正無限,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는 빈 땅이 한없이 많으니
那得年年常立碑. 어찌 해마다 계속 비석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조집신은 23세였던 1684년(康熙 23년)에 山西鄕試考官이 되어 북경에서 출발하여 산서성 太原에 갔다가 향시가 끝난 후에 다시 태원에서 남하하여 북경을 지나 연말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 시는 그가 太行山을 지

www.kci.go.kr

날 때 길가에 서 있는 수많은 송덕비 종류의 비석을 보고 느낀 감회를 적은 7언고시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비석을 세운 자의 교묘한 언행을 풍자하고 지방관들의 德政의 허위성을 폭로하였으며, 더불어 비석을 세움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을 보여주었다. 전반부(제1구~제12구)는 시인 자신이 비석을 보고 느낀 감수를 적은 것이고, 후반부(제13구~제28구)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송덕비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악을 폭로하였다. 시인은 여기에 대조와 비교의 수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극대화시켰다. 즉 제5구에서 장관이 '惠政'을 베풀었다는 내용과 제15구에서 '아무 은혜도 없다'는 것, 제6구에서 '남겨진 은혜가 천년만년 길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과 제16구에서 '백성들이 그 장관을 그리워할 리가 없다'고 한 것들은 모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비교의 수법이다. 시인은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비문 내용의 허위성을 직접적으로 폭로하였다. 또한 제23구에서 비석의 훌륭한 외관과 제24구에서 백성들의 남루한 복장, 제1구에서 비석이 촘촘히 들어선 모습과 제27구에서 빈 땅이 없다고 한 언급 등은 모두 외관과 공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암시한 것이다. 특히 제25~26구에서 태항산의 돌이 모두 진흙으로 변하여 더는 자신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현이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송덕비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느끼게 한다. 시인은 길가에 세워진 송덕비만을 보고도 권력을 미끼로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날카로운 감각으로 파악해 그 부당함을 시로 폭로하였다. 이 시는 조집신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지은 것이지만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향해 연민을 가졌던 인물임을 보여 준다.

다음은 〈甿入城行(농민들이 도성으로 들어가다)〉 시를 보기로 한다.

村甿終歲不入城,　농부는 일년 내내 도시로 들어가지 않으니
入城怕逢縣令行.　들어가면 현령 행차를 만날까 두려워서라네.
行逢縣令猶自可,　길에서 현령을 만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www.kci.go.kr

莫見當衙據案坐. 관아에서 피고로 만나면 절대로 안된다네.
但聞坐處已驚魂, 앉아 있는 곳을 듣기만 해도 혼비백산인데
何事喧轟来向村. 어찌하여 요란을 떨며 마을로 행차했을까?
鎖鐺杻械從青蓋, 쇠사슬과 수갑이 현령의 가마를 뒤따르고
狼顧狐嗥怖殺人. 이리와 여우처럼 노려보고 외치니 살인할까 겁난다네.
鞭笞榜掠慘不止, 채찍질하고 장을 치니 참상이 그치지 않아
老幼家家血相視. 늙은이건 어린이건 집집마다 피가 낭자하다.
官私計盡生路無, "공사로 온갖 계책 다 짜내도 살길이 없으니
不如卻就城中死. 차라리 쳐들어가 도성 안에서 죽읍시다."
一呼萬應齊揮拳, 한 사람이 외치자 모두 호응하여 일제히 일어나니
胥隸奔散如飛烟. 서리들이 달아나는 꼴이 연기와 같았다.
可憐縣令竄何處, 가련하게도 불쌍한 현령 어디로 도망가는가?
眼望高城不敢前. 높은 도성이 보여도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네.
城中大官臨廣堂, 성 안에 고관이 집무실에서 사정을 살피니
頗知縣令出賑荒. 현령이 구황을 구실로 나가 저지른 짓이었네.
門外甿聲忽鼎沸, 문 밖에서 농부들 고함소리 갑자기 들끓자
急傳溫語無張皇. 황급히 따뜻하게 진정하라고 말을 전하네.
城中酒濃醑飪好, 성 안의 술은 진하고 떡은 맛이 좋으니
人人給錢買醉飽. 사람마다 돈 주어 술 흠뻑 마시고 먹게 했다네.
醉飽爭趨縣令衙, 실컷 마시고 먹고 다투어 현령의 관아로 달려가
撤扉毁閣如風掃. 바람이 휩쓸 듯 문짝을 걷어차고 훼손했네.
縣令深宵匍匐歸, 현령은 밤이 깊어서야 기어 나와 돌아가니
奴顔囚首銷凶威. 흉악한 위세 사라지고 죄수 꼴이 되었네.
詰朝甿去城中定, 다음날 아침 농부들이 돌아가 성이 안정되자
大官咨嗟顧縣令. 장관은 탄식하며 현령을 돌아보네.

이 시는 1721년(康熙 60년) 60세였던 조집신이 蘇州에 거주할 때 지은 것이다. 이 당시 이 지역의 현령이 구황을 명목으로 농촌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위세를 부리며 그곳 농민을 핍박하여 수탈하려 했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집단 봉기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시의 앞 단락(제1구~제10구)에서는 이 지역 관리들이 농민을 얼마나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했

www.kci.go.kr

는지를 서술하였다. 현령의 행차를 만날까 두려워 농민들이 도성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모습, 관리들이 농촌을 순행하면서 쇠사슬과 족쇄를 들고 사납게 굴어 백성들이 겁에 질려하는 모습 등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뒤 단락(제11구~28구)에서는 농민들이 관리의 박해를 못 이겨 반기를 들고 도성으로 쳐들어가는 과정을 담아내었다. 봉기가 일어난 후 고관들의 확연히 다른 태도와 처세를 통해 농민들이 반항하게 된 원인과 과정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중에 말하고 있다. 시인은 농민들이 반항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교하여 관리들이 농민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장면과 봉기 이후 현령이 혼비백산하는 장면 등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이를 위해 시인은 현실을 폭로하고 백성의 고난을 묘사한 시에 맞게 적절한 비유와 신랄한 용어도 거침없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시는 내용의 묘사가 선명하고 희극성이 매우 풍부한 작품이라 하겠다. 조집신은 시에는 "시 밖에 일이 있어야 한다(詩之外尚有事在)"고 주장을 하였는데, 실제 자신의 시 창작에 이를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일은 농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史書에서 직접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작품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으니 일종의 詩史라고 할 수 있겠다.

### 2. 회고시

다음은 조집신이 금릉에서 갔다가 이곳에서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며 쓴 〈金陵雜感六絶句(금릉에서의 느낌을 적은 여섯 수의 절구)〉 시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시를 보기로 한다.

深宮燕子弄歌喉, 궁궐에서 배우들이 ≪연자전≫을 노래 부르고
粉墨尚書作部頭. 분장한 상서가 악단의 지휘자가 되었네.
瞥眼君臣成院本, 눈 깜짝할 사이에 군신들 극본 속 인물이 되었으니
輸他叔寶最風流. 제일 풍류 있기로 소문난 진숙보도 그만은 못하구나.

www.kci.go.kr

이 시는 1724년(擁正 2년) 봄 조집신이 아들 趙慶의 결혼식에 참가하러 金陵에 갔다가 金陵의 역사유적을 생각하며 느낀 바를 적은 7언절구이다. 金陵은 지금의 南京으로 청초에 南明 왕조가 재기를 꿈꾸며 이곳에 나라를 세웠으나 결국 망했던 곳이다. 조집신은 南明의 覆滅을 소재로 이 시를 지었다. 이 시에서는 명나라가 멸망된 후 명나라의 福王 朱由崧이 남경에 세운 南明 정권의 부패한 단면을 그려냈다. 시인은 유적지를 지나면서 南明 정권을 생각하게 되었고 정권의 부패한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멸망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제1~2구에서는 남명의 병부상서 阮大鋮이 배우들로 하여금 홍광제의 궁궐에서 자기가 지은 ≪연자전≫이라는 희곡을 공연하게 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 제3구에서는 남명 정권 군신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이 희극의 소재가 되어 백성들이 풍자하고 품평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제4구에서는 자신의 과오로 나라를 멸망케 한 남북조 시기 진나라의 황제인 陳叔寶도 南明 홍광제의 음탕함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교의 수법으로 홍광제의 황음무도함을 더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시인은 남명의 군신들이 가무에 빠지고 향락만 추구하는 생활을 폭로함으로써, 남명 정권이 멸망하게 된 원인 더 나아가서는 명조가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된 원인과 그것에 대한 애석함을 시 속에 담아내었다.

다음은 〈회음에서의 옛일을 회고하며(淮陰詠古)〉 시를 보기로 한다.

王孫無食空垂釣, 한신은 먹을 게 없어서 부질없이 낚시를 드리웠는데
老婦相哀少年笑. 나이든 아낙들은 불쌍히 여겼으나 소년은 비웃었네.
可憐一飯尚千金, 가련하게 밥 한 그릇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었고
百戰攻成乃爾報. 백전에서 공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에 보답하였네.
噲等再拜言稱臣, 번쾌 등은 재배하여 스스로 칭신했으니
鐘室兒女良有因. 황실의 아녀자에게 살해당한 것도 까닭이 있었다네.
漢廷將相羞爲伍, 한나라 조정 장상이 한패가 되길 부끄러워했던 이는
曾是淮陰胯下人. 일찌기 회음 지역에서 가랑이 아래로 지나간 이라네.

www.kci.go.kr

이 시는 조집신이 淮陰 지역을 지나며 그곳의 대표 인물인 韓信에 대해 느낀 바를 적은 7언율시이다. 淮陰은 秦代 淮水 남쪽에 있는 縣(지금의 강소성 淮安市)으로 한신이 나고 자랐던 곳이다. 한신은 秦末 漢初의 명장 중 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항우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았고, 뒤에 유방의 대장군의 되어 漢이 천하를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나중에 죽임을 당하면서 토사구팽의 당사자가 된 인물이다. 이 시의 首聯에서는 한신이 젊었을 때 가난하여 낚시터에서 빨래하는 아낙의 도움으로 끼니를 해결하자 이로 인해 당시에 비웃음거리가 된 고사를 말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한신이 젊어서 漂母에게 밥을 얻어먹고, 백정의 가랑이를 지나가는 등의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이후 표모에게는 천금을 하사하고, 백정은 中尉로 임용하였으며, 한나라를 위해서는 백전백승으로 거두는 공을 세워 젊어서의 수모를 만회하였다고 언급하였다. 頸聯에서는 유방이 패권을 차지한 후 유방과 동서지간이었던 번쾌가 한신에게 스스로 칭신한 것이 결국 장락궁의 종실에서 여태후에 의해 살해당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한나라 조정에서 함께 신하로 등용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이는 한나라 건국에 누구보다 공이 많았던 한신이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였다. 한신은 여태후에 의해 반란을 꾀한다는 죄목으로 자신뿐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았다. 조집신은 회음 지역을 지나며 역사의 풍파 속에서 부침이 많았던 한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느낀 바가 있어 이를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 3. 유람시

조집신은 오랜 기간 전국 각지를 유람하였는데, 유람하면서 그가 쓴 〈山行雜詩四首(산을 여행하며 쓴 잡시 네 수)〉 시 중 한 수를 보기로 한다.

巑路盤盤行欲迷, 산길 구불구불하여 길을 잃을 뻔하고
晩來霜霰忽凄凄. 저녁에 서리 섞인 눈이 내려 갑자기 쌀쌀하구나.

www.kci.go.kr

林間風過猶兼葉, 숲속에서 바람 불어오는데 나뭇잎도 함께 실려 오고
澗底寒輕已作泥. 산골짜기 밑은 추위가 덜해 눈 녹아 진창이 되었네.
馬足蹙時疑地盡, 말이 발을 주춤이며 가지 않으니 길 막힌줄 알았고
溪雲多處覺天低. 산골짜기 구름 많은 곳엔 하늘도 낮게 느껴진다네.
倦游莫訝驚心數, 피곤한 여행에 자주 놀라 이젠 이상한 일도 아니니
歲暮空山鳥亂啼. 세모의 텅 빈 산에는 새들만 어지러이 울부짖는구나.

이 시는 시인이 여행 중 산길을 지나면서 겪었던 힘든 여정을 쓴 7언율시이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구불구불한 산길과 악천후로 인해 이번 여행이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수련의 '盤盤'과 '凄凄' 등의 표현은 산길이 구불구불하여 다니기 어려운 상황과 눈까지 내린 차가운 날씨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외적 환경이 시인의 마음까지 춥고 힘들게 했음을 말해준다. 수련과 함련이 외부의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였다면 경련과 미련은 시인의 심리 상태를 그려냈다. 경련에서는 낭떠러지, 산골짜기, 자욱한 구름, 낮은 하늘과 같은 묘사를 통하여 답답하고 숨 막히는 공간적 긴장을 형성함으로써 시인의 우울하고 막막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地盡'과 '天低'라는 시어는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앞의 구절(대지 위의 경물에 대한 묘사)과 뒤의 구절(하늘에서 날고 있는 새에 대한 묘사)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시 속의 공간적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는 시각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면 마지막 미련에서는 새소리를 통한 청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공감각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이다. 미련의 제7구는 이 시의 전반에 흐르는 시인의 심리에 대한 총결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이번 산행이 이변적인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막막한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놀랄만한 상황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조집신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더질 만큼 오랜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望匡廬不可見(여산을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아서)〉[15] 시를 보기

15) 시 제목에 나오는 匡廬는 廬山을 말한다. 廬山은 강서성 북부의 鄱陽湖 盆地

www.kci.go.kr

로 한다.

香爐煙散半湖雲, 향로봉의 연무 흩어져 구름이 호수를 반쯤 덮었는데
舟入荷陂水又分. 배가 하피에 들어서니 강은 또 갈라지네.
卻羨沙頭双白鷺, 물 위에 한 쌍의 백로가 부러우니
潛隨明月過匡君. 살그머니 명월 따라 여산을 지나네.

이 시는 조집신이 배를 타고 鄱陽湖를 지나면서 바라본 廬山을 그려낸 7언절구이다. 시인은 여산의 모습을 안개, 구름, 백로, 명월 등을 통한 간접적인 묘사 방식으로 여산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바라보는 벅찬 심정을 표현하였다. 향로봉은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선이 향로봉의 정상에서 향을 피우면서 연무를 내뿜고 있다고 한다. 조집신은 제1구에서 향로봉에서 나오는 연무가 구름을 형성하여 호수를 덮어버렸다고 묘사함으로써 산과 호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제2구는 배의 동적 이동을 묘사함으로써 시인의 배가 여산에서 더욱 멀어지면서 갖게 되는 심적 안타까움을 암시하였다. 특히 '又'자는 배가 여산에서 더욱 멀어짐으로 인해 시인이 느끼는 심리적 아쉬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제3~4구에서는 명월 따라 여산에 드나들 수 있는 백로 한 쌍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시인은 백로를 자유의 상징물로 여겨 규제된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기탁하였고, 명월을 마음속의 귀의처로 생각하며 항상 밝은 달과 함께 하고픈 심정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昭陽湖行書所見(소양호를 지나면서 본 경치)〉 시를 보기로 한다.

---

에 위치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한나라 초기에 匡俗의 아버지 東野王이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였지만 불행히도 목숨을 잃자, 조정에서는 그의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광속에게 陽(지금의 鄱陽縣) 땅을 봉해주고 그의 호를 '廬君'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광속은 도술을 좋아하여 관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도술을 배웠는데, 그가 들어간 산을 사람들은 廬山이라고 불렀다. 여산은 또 '匡廬'로도 불렸다.

www.kci.go.kr

屋角參差漏晚暉, 지붕의 모퉁이 들쭉날쭉하여 저녁 햇살 내리비추고
黃頭閑緝綠蓑衣. 노란머리 노인 한가로이 녹색 도롱이를 깁고 있네.
倦來枕石無人喚, 노곤해져서 돌을 베고 자면 부르는 이 없고
鵝鴨如雲解自歸. 거위와 오리들도 저들이 알아서 돌아오네.

이 시는 조집신이 昭陽湖를 지나면서 바라본 어촌의 풍경을 노래한 7언 절구이다. 소양호는 강소성과 산동성의 경계에 있는 호수로 동쪽에 微山이 있어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昭陽湖는 微山湖라고도 불린다. 이 시는 시인이 소양호를 유람하며 해질 무렵 소양호 호숫가에서 생활하는 어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렸다. 전체 시는 '한적함(閑)'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어민들의 한적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가옥, 도롱이, 돌베개, 가축 등을 묘사함으로써 호숫가 농민들의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황혼 녘에 노란 햇살을 받으며 노인이 도롱이를 깁는 모습과 저녁이 되면 줄지어 우리로 돌아오는 가축들의 모습이 평화로운 어촌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다. 제4구의 구절은 도연명이 지은 〈歸去來辭〉의 "구름은 무심히 산 구멍에서 나오고, 새는 나는 것에 지쳐 돌아가는구나(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라고 한 시를 본떠서 지은 것이다. 조집신은 시 속에서 소양호 주변에 사는 어민들의 단조롭지만 자유롭고 즐거운 일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생활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4. 전원시

조집신이 전원의 한가한 삶은 노래한 〈村舍(시골 집)〉 시를 보기로 한다.

亂峯重疊水橫斜, 여러 산봉우리 겹쳐진 중에 강물 비켜 흐르고
村舍依稀在若耶. 시골집이 아련히 약야산에 있네.
垂老漸能分菽麥, 늙어가며 차차 콩과 보리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니
全家合得住烟霞. 온 식구가 안개와 노을 속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리.

www.kci.go.kr

催風筍作低頭竹, 바람의 재촉에 죽순은 머리 숙인 대로 자라고
傾日葵開衛足花. 해를 따라 해바라기는 뿌리 보호하며 꽃 피우네.
雨玩山姿晴對月, 비 오면 산의 모습 완상하고 날 개이면 달이 나오니
莫辭閒澹送生涯. 한가하고 조용히 평생 보내는 일 사양하지 말게나!

이 시는 조집신이 거의 50세에 가까울 때 지은 7언율시이다. 벼슬을 그만두고 만년에 전원 속에서 한가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여기서 村舍는 시인이 고향인 산동 博山 城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지은 '紅葉山樓'를 가리킨다. 제1구는 시골 집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직접 묘사하였고, 제2구는 시골집을 若耶山에 비유함으로써 그곳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若耶는 절강성 會稽縣 남쪽에 있는 산으로, 西施가 浣紗하였다는 若耶溪가 여기에 있으며 많은 명사들이 숨어 살았던 곳이다. 頷聯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알게 된 자신의 변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제5-7구에서는 시골집에서 죽순과 해바라기의 생장과정을 지켜보며 한가로이 지내는 모습과 자연에 맞추어 생활하는 소박한 일상을 표현하였다. 시인은 자라면서 머리 숙이는 죽순과 뿌리를 보호할 줄 아는 衛足花[16]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머리 숙일 줄 알고 스스로 보호할 줄 아는 지혜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 시인은 제8구에서 이처럼 선경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생을 한가하고 조용히 보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曉起卽目(새벽에 일어나 바라보다)〉 시를 보기로 한다.

睡足愛秋曉, 잠 충분히 자고 나니 가을 새벽 아름답고
迎凉獨啓闥 청량함 맞이하며 홀로 빗장 연다네.
初陽微瀉水 막 떠오르는 태양 물에 비치고
餘霧散棲山 남은 안개는 흩어져 산에 깃드네.
樹與禾麻競 나무는 벼와 삼과 다투고

16) 衛足花는 해바라기의 별명으로, 해를 따라가면서 자기 뿌리를 가려주어 '위족화'라 부른다.

www.kci.go.kr

人將雞犬閒　사람은 닭과 개와 더불어 한가롭네.
遥憐五侯宅　권세 있는 이 부러워하는 마음 멀어졌지만
春夢未闌珊　봄날의 꿈은 아직 시들지 않았다네.

이 시는 조집신이 전원에 살면서 가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 느낀 바를 노래한 7언율시이다. 수련과 함련은 새벽에 맞이하는 정경을 묘사하였고, 경련과 미련은 전원의 삶에서 시인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수련에서는 숙면을 취하고 맞이한 새벽이 상쾌하기 이를 데 없고, 맑은 공기 속에서 빗장문 열어 하루를 맞이하는 기분 좋은 느낌을 표현하였다. 함련은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물 위를 비추자 산 주변에 내려앉았던 산안개 흩어져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이른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과 이로 인해 변화되는 산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전원에서의 풍경과 한가로운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나무는 벼와 삼과 경쟁하듯이 갈수록 우거지고 시인 역시 집에 기르는 가축들처럼 자연과 하나 되어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미련에서는 시인이 전원에 파묻혀 지내며 부귀권세 부러워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졌지만, 자신의 봄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조집신이 말하는 봄날은 부귀하고 영화로운 삶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에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전원에서의 삶 일지라도 그 안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나날이 부귀영화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봄날의 꿈일 수도 있겠다.

## Ⅳ. 결론

조집신은 청초 시단에서 王士禛, 朱彝尊, 宋琬, 施閏章, 査愼行 등과 더불어 清初六大家로 불리며 활발하게 활약했던 시인이다. 그는 당시 시단을 풍미했던 왕사정의 神韻說은 허위의 수식에만 힘써 그 속에 진정한 성정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조집신은 왕사정과 시론에서 대립 구도를 이루며

www.kci.go.kr

자신만의 시가 이론을 내세웠고 신운파와는 또 다른 시세계를 구축하였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왕사정과 조집신의 시를 비교하며 "왕사정은 신운을 어렴풋하게 드러내는 것을 주종으로 삼았고, 조집신은 생각을 세밀히 다듬어 묘사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王以神韻縹緲爲宗, 趙以思路劖刻爲主.)"라고 하였다. 여기서 조집신이 생각을 깊게 새기고 감정의 세미한 부분까지 묘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신운파가 후에 내용이 공허하여 궁핍하고 경박한 데로 흐르는 것과는 확실히 반대되는 것이다.

조집신은 ≪담용록≫에서 왕사정의 시론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시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시 안에 사람이 있고, 시 밖에 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 속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경치의 묘사나 정회의 서술도 직접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작품을 많이 지었다. 또한 조집신은 뜻을 중시하여 언어에 집착하지 말 것을 주장했는데, 실제 그의 작품 가운데는 시어가 소박하고 적절하며 내용이 분명한 시들이 많다.

앞에서 살펴본 작품 가운데 〈道旁碑〉와 〈甿入城行〉 등은 사회의 부패상과 이에 반기를 든 백성의 모습을 직접 묘사함으로써 시를 통한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었다. 〈金陵雜感六絶句〉와 〈淮陰詠古〉 등은 역사적 일을 회고함으로써 우국애민의 정을 드러내고 소용돌이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을 추모하였다. 〈山行雜詩四首〉, 〈望匡廬不可見〉, 〈昭陽湖行書所見〉 등은 조집신이 각지를 유람하면서 경험하거나 직접 본 광경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속에 시인이 생각하는 이상세계도 함께 드러내었다. 〈村舍〉와 〈曉起卽目〉 등은 조집신이 만년에 전원에 살면서 느꼈던 일상의 즐거움과 한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조집신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시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로 실제 시를 창작했기 때문이다.

조집신은 28세 때 ≪장생전≫ 사건으로 인해 파직되었고 부패한 사회에 실망하고는 이를 피하여 50여 년을 떠돌아다니며 생활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보고 경험한 일들을 시로 승화

www.kci.go.kr

시켰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인이다. 조집신은 이론에서 창작에 이르기까지 현실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神韻派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며 나름의 시세계를 구축하여 淸詩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근인 학자 유세남은 ≪淸詩流派史≫에서 조집신의 시는 이론 면에서 이후 袁枚의 性靈說 및 翁方綱의 肌理說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 ＜참고문헌＞

趙執信, ≪談龍錄≫, ≪淸詩話≫內, 臺灣: 明倫出版社, 1971.
趙執信, ≪飴山堂集≫, 臺灣: 中華書局, 1966.
嚴迪昌, ≪淸詩史≫, 浙江: 古籍出版社, 2002.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新文藝出版社, 1956.
王夫之 等 撰, ≪淸詩話≫, 臺灣: 明倫出版社, 1971.
吳宏一, ≪淸詩流派史≫, 臺灣: 學生書局, 1984.
吳宏一, ≪淸代詩學初探≫, 臺灣: 牧童出版社, 1977.
蔡冠洛, ≪淸代七百名人傳≫, 北京: 中國書局, 1984.
陳良運, ≪中國詩學批評史≫, 江西: 人民出版社, 1995.
唐富齡, ≪明淸文學史≫, 四川: 武漢大學出版社, 1994.
鄔國平·王鎭達, ≪淸代文學批評史≫, 上海: 古籍出版社, 1995.
劉世南, ≪淸詩流派史≫, 臺灣: 文津出版社, 1995.
武莉, ≪趙執信詩歌研究≫, 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張光興, 〈王士禛·趙執信詩學觀之比較〉, ≪文學遺産≫, 1993, 第二期.
陳汝洁·劉聿鑫, 〈王士禛·趙執信交惡眞相考〉, ≪文史哲≫, 2009, 第五期.
김학주·이동향·김영구, ≪중국문학사 I ≫,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김학주, ≪청대시선≫, 서울: 명문당, 2006.
기태완, ≪청시선≫, 서울: 보고사, 2011.

www.kci.go.kr

송용준, ≪중국시사≫, 서울: 명문당, 2017.
유성준, 〈조집신은 ≪담용록≫에서 신운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국문학이론≫ 창간호, 2002.

## <Abstract>

Zhao Zhi-xin is poet in the middle Qing. He has shown a sign of genius in writing since he was a child. He passed the exam at the age of 18 and went up to the rank of Youzhanshan. In 1689, at the age of 28, he was dismissed from his office because he had seen the play "Changshengdian"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mourning due to the emperor's loss of his mother. After then He lived freely, traveling various places without going back to the public office. In this paper, I review Zhao Zhi-xin's works of poetry and his poetics. He was a nephew of Wang Shi-zhen, who was then the leading power of poetical circle, but Zhao was very different from Wang. Zhao Zhi-xin criticized Wang Shi-zhen's Shenyunshuo and insisted that his sincere feelings and actual situation should be portrayed into the poetry. He insisted in the "Tanlonglu" that "There should be people inside the poetry, and there must be work outside the poetry(詩之中須有人在, 詩之外須有事在.)." Therefore, his poetry has depth and power in the idea, and there are many works that reflect the suffering of the people. His books include "Yishantangji" and "Shengdiaopu".

Key Words : 조집신(Zhao Zhi-xin), 시론(poetics), 담용록(Tanlonglu), 이산당집(Yishantangji), 성조보(Shengdiaopu), 왕사정(Wang Shi-zhen), 신운설(Shenyunshuo).

www.kci.go.kr

www.kci.go.kr